

2022 열린 인생 18.

여호수아! 약속의 땅에서 점점 강해지다.

[여호수아 11:23]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1. 약속의 땅 - 전쟁의 땅

약속의 땅은 전쟁의 땅이다. 약속의 땅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상태는 '전사'다. 약속의 성취가 가까이 왔다는 사인은 '강건함'이다. 광야는 훈련이다. 훈련의 목적은 '약속의 땅'을 위함이다. 준비된 사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약속의 땅이 '전쟁의 땅'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낭만적인 땅이 아니다. 그 이유는 약속의 땅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가나안 거민들이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사탄은 마지막까지 저항할 것이다. 그래서 약속의 땅은 전쟁의 땅이다. 여호수아를 향한 선포는 '강하고 담대하라'다. 왜 여호수아가 강해야 하는지, 담대해야 하는지 이유는 명확하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취할 사람을 향한 메시지는 여호수아와 동일하다. '강하고 담대하라!'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신다. 명심하라. 약속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2. 점점 더 강해지는 그리스도인

출애굽(구원)한 사람들의 뜻은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이다. 내가 구원 받았는가? 구원 받은 '나'라는 존재는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라.

(1) 구원(출애굽) 받은 성도들은 세상 신의 다스림에서 제외된 존재다.

더 이상 애굽 신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존재다. 예수의 보혈로 구원 받은 나는 세상 신의 다스림에서 나온 존재다. 그래서 성도들의 구원은 강력하다. 완전히 다른 존재다. 사탄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존재일 뿐 아니라 (홍해에서 바로의 병거가 수장 당함)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거민을 떨게 하는 존재다.

[여호수아 5:1]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수아 5:1, 공동 번역]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소문을 듣고 모두 넋을 잃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홍해와 요단 강을 마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죽음과 절망의 바다를 건너게 하실 분은 하나님뿐이다. 성도의 구원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이 묻어 있다. 가나안 최고의 권력자인 '왕'들을 떨게 하는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인 것처럼 사탄을 두렵게 하는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애굽의 어떤 영향력도 받지 않는 존재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자. 우리에게 있는 영향력은 거짓이다. 애굽의 영향력이 항상 크게 느껴지는 경우는 내가 출애굽한 존재라는 사실을 모를 때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항상 내가 출애굽을 통해 구원 받은 존재라는 사실에 감사해야 한다.

(2) 성도는 강한 존재다.

성도의 소문을 듣고 가나안 거민들과 왕의 마음이 녹았다. (원어는 썩기를 박다.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 그들의 마음에 썩기가 박혀 있다는 것이다)

정신을 잃었다는 것은 '넋을 잃었다'라는 말이다. 계획, 생각, 감정이 멈춰 버린 상태를 말한다. 구원 받은 성도는 강한 존재다.

(3) 점점 더 강해져 간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더 강해져 간다. 약속의 땅 안에 있는가? 당신은 점점 더 강해져 갈 것이다.

3. 강한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특징

(1) 작은 불씨를 제거한다.

여호수아는 강한 사람이었다. 여호수아의 강함의 결과는 승리다. 성도는 강해야 한다. 승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을 보니 여호수아의 승리의 비결이 있다. 여호와와 명령과 여호수아의 순종과 행함은 같았다. (승리의 비결)

[여호수아 10:40]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겟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 11:15]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작은 불씨 하나도 용납하시지 않았는가? 너무나 잔인하게 모든 거민을 진멸한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오랜 세월 동안 가나안 거민들이 하나님을 대적해 세운 견고한 진은 성이 되었다. 왕이 되었고 문화가 되었다. 절대 변하지 않는다. 리셋 되어야 한다. 다시 시작해야 한다. 오래된 문화가 바뀌는 방법은 개혁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다. 새로운 마음으로 예전 것과 완전히 구별되어야 한다. 그 사람이 새로운 땅의 권위를 얻을 수 있다.

[여호수아 11:16-19]

16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겟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17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할락 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죽였으며
18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19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여호수아 11:23]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놀라운 말씀이다. 여호수아의 전쟁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전쟁이었다. 여호수아의 전쟁은 완전한 전쟁이었다. 17절을 보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죽였으며” 잔존 세력을 남기지 않았다. 약속의 시즌 가운데 행하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완전한 전쟁이다. 작은 불씨 하나 남겨 두지 않는 전쟁이다. 19절을 보라.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여호수아의 전쟁은 타협이 없는 전쟁이다.

여호수아는 강한 사람이다. 강한 사람은 여호수아처럼 작은 불씨 하나도 남겨 두지 않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려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성도의 무너짐은 큰 것이 아니다. 남겨둔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우는 것이다. 내안의 가나안 거민의 잔재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31왕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작은 여우가 온 포도밭을 망친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옛 자아의 영향력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날마다 죽어야 한다. 그래야 사마리아로 들어갈 수 있다. 그 사람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며 영적인 사람이며 강한 사람이다.

(2)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다음주)